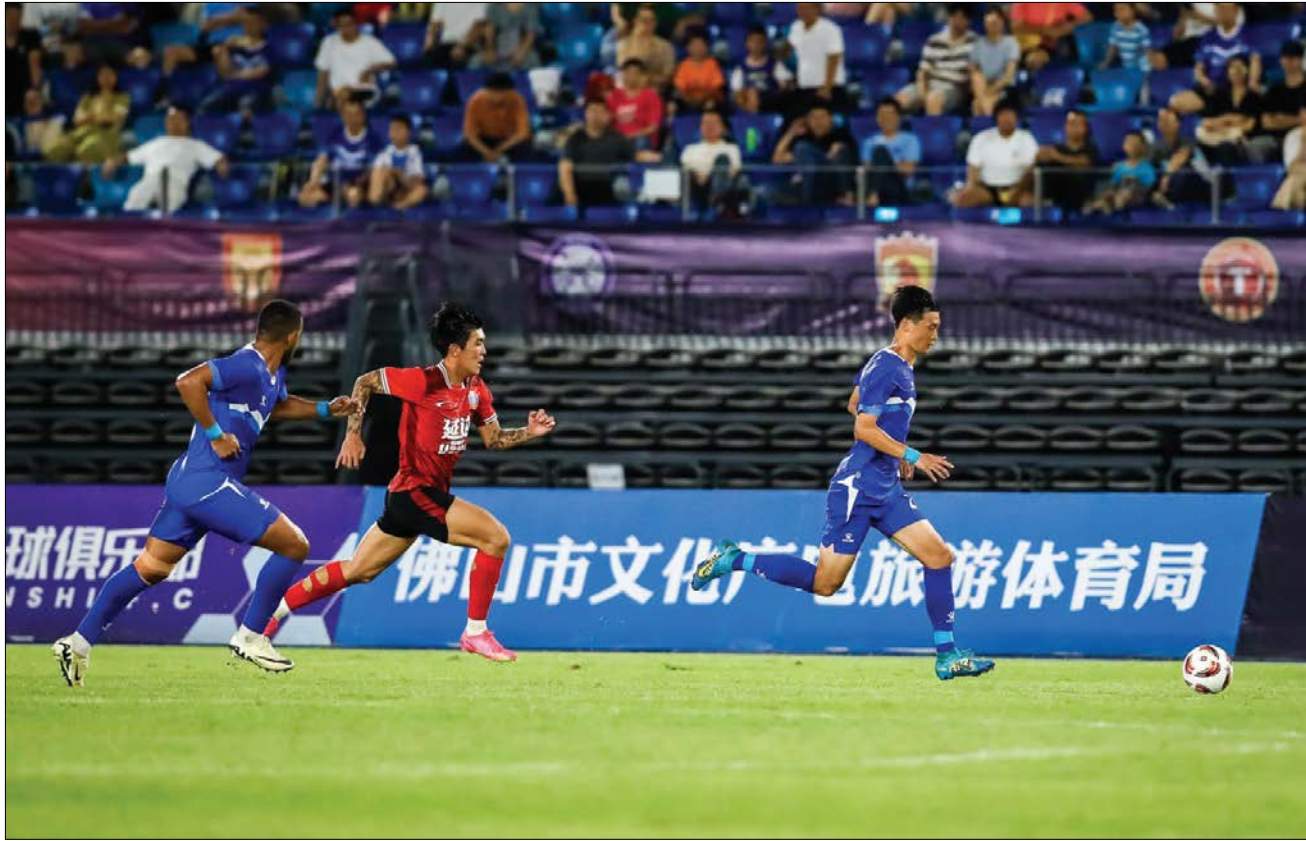


‘왕봉, 천창절 결장’ 연변팀, 불산남사에 0:2 원정패

— 이반 감독 체제서 3 경기 연속 무승



공을 쫓아 질주하는 림태준, 이반 감독 체제에서 선발 자리를 꿰찼다.

6월 30일 19시 30분, 광둥성 불산시 남해체육중심체육장에서 진행된 2024 시즌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15 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불산남사(원 동관관련) 팀에 0대 2로 원정패를 당했다.

이날 연변팀의 이반 코치라도 감독은 풀문을 19번 동가림에게 맡기고 2번 현지진, 15번 서계조, 24번 리호걸, 20번 김태연으로 수비선을 구축했으며 18번 루통카이저, 17번 리세빈, 30번 왕박호, 6번 리강, 13번 림태준으로 중양을 구성, 9번 로난을 원톱으로 4-1-4-1 진세로 나섰다.

한편 불산남사팀의 터레시 감독은 12번 양초에게 풀문을 맡기고 13번 장흥박, 17번 마리오, 23번 문준걸, 41번 구학검으로 수비진을 쳤으며 16번 마준량, 39번 리박문으로 허리를 구성, 20번 오의진, 10번 라벨, 30번 황초기와 24번 송윤동으로 공격진을 구성한 4-2-3-1 진세로 맞섰다.

두 팀의 선발 출전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24.9세와 26.9세로 연변팀이 앞섰다.

부상으로 출전 여부에 축구팬들의 관심을 모았던 이보선수는 후보석을 지켰고 불산남사의 상비아와 황위도 후보로 선발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경기 초반 쌍방은 조심스런 탐색전으로 상대의 반응과 변화를 주문했다.

연변팀의 천창절과 왕봉의 빈자리는 U-21 선수들이 메웠지만 경기 15분까지 한치도 밀리지 않는 경기를 펼쳤고 한두차례의 슛 기회도 있었다. 홈장인 불산남사가 되려 철통수비로 방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19분경, 불산남사팀의 한차례 공격이 위협적이었는데 동가림의 장벽에 막혔다. 불산남사의 첫 슈팅이었다. 24분경의 먼거리 슛도 위협했지만 동가림이 거두어냈다. 이때까지 연변팀은 한차례의 위협한 슛도 없었다.



이날 경기에 수비수로 나선 현지진

28분경, 루통카이저가 전술 반칙으로 옐로카드 경고를 받았고 프리킥을 리용한 불산남사의 공격이 위협적이었으나 다행히 마리오의 헤딩슛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30분경부터 경기는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몸싸움도 격렬해졌다. 연변팀의 문전에서 아찔아찔한 장면이 수차 연출되었지만 동가림과 수비수들이 출중한 표현으로 하나하나 외해시켰다.

경기 추가시간에 로난이 두차례의 강슛을 날렸지만 한차례는 상대 문지

기 양초에게 막히고 한차례는 골문 밖으로 굴러나갔다. 공수 절주가 느슨한 전반전은 쌍방이 0:0으로 손잡았다.

후반전에 불산남사는 마준량을 내리고 대신 차세위를 출전시켰지만 연변팀은 교체 카드를 내리지 않았다. 48분경 로난의 깜짝 슛이 비교적 위협적이었으나 골문 밖으로 비껴나갔다.

경기 53분경, 서계조가 금지구역 밖에서 대인방어 시 상대를 밀쳐 옐로카드를 받고 다음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불산남사는 매우 좋은 위치에서 얻은 이 프리킥 기회를 잘 리용하지 못했다.

57분경, 이보가 왕박호를 교체하여 출전하고 불산남사도 새로 영입한 옹병 불터스를 투입시키며 패스게 경기의 주도권 쟁탈에 나섰다.

60분경, 인원 조정을 한 후 한차례 공격에서 갓 출전한 27번 불터스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라벨이 골을 성사시키며 1:0으로 앞서나갔다.

이보의 조직력과 로난의 충격력을 리용한 연변팀의 공격은 상대의 수비벽을 뚫기엔 좀 무리였다. 68분경, 이보와 로난의 배합이 세련된 듯하였으나 로난의 슛이 어이없이 골문 우를 한참 벗어났다.

이날 경기에서 3, 4차례의 위협한 슛을 막아낸 동가림의 표현이 비교적 눈에 띄었다. 74분경, 이반 감독은 왕빈한과 양경범으로 리세빈과 리강을 교체 투입시키며 공격을 강화했다.

76분경, 이보가 얻어낸 프리킥을 본인이 주도했지만 방어벽에 맞춰 코너킥으로 이어졌고 연변팀의 공세가 날이 서는 듯했지만 80분경 동가림의 실수로 또 한골을 내주며 0:2로 간격이 더 벌어졌다.

후반전 추가시간이 6분 주어진 가운데 연변팀은 한골이라도 만회하려고 모지름을 썼지만 불산남사의 골문은 시종 열리지 않았다.

이반 감독이 연변팀의 사령탑을 잡은 후 지휘한 세번째 경기는 원정에 약한 연변팀의 실력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본인은 올 시즌 불산에서 두번째 패배를 삼켜야만 했다.

돌아오는 7월 7일 19시에 연변팀은 연길시진먼건강체육중심경기장에서 소주동오팀과 제 16라운드 경기를 펼치게 된다. 이는 올 시즌 연변팀의 첫 홈장 방문기인 동시에 4경기 연속 치르는 홈장전의 첫 경기이기도 하다.

/ 김태국 김파 기자

「특독 관전평」

답답한 기술통계표, 홈장에선 개선될라나?



이반 감독이 이끄는 연변팀이 6월 30일에 펼쳐진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15라운드 경기에서 0대 2 원정패를 당했다. 이반 감독 체제로 전환한 후 3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중이다.

이날 무더운 날씨 만큼이나 절구가 느렸던 두 팀의 전반 경기는 경기후 기술통계표가 내놓은 기록들을 보아도 답답했던 경기력을 읽을 수 있다. 그나마 2골을 폭발시킨 불산남사팀이 슈팅 13회에 유효슈팅 4회를 기록했다면 연변팀은 슈팅 7회에 유효슈팅은 겨우 2회 밖에 나오지 않았다. 지어 전반전에 연변팀은 유효슈팅이 아예 없기도 했다.

이반 감독은 부임후 짧은 패스를 통한 ‘타키타카’ 축구를 구사하기 위해 점유를 축구 전술을 이어가려는 듯했지만 연변팀은 아직까지 이반 감독 체제에서 승리가 없다. 이날도 연변팀은 불산남사팀의 323회 패스에 비해 100회 넘게 많은 428회 패스를 선보였고 공 점유율도 56.7%로 상대팀을 앞섰다.

그러나 전진 패스 과정에 협력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대인방어 시로 출된 수비 실수 등 문제점들은 공격포인트를 올리고 기회를 창출하

는 데 결림돌로 작용했고 90분 동안 유효슈팅이 2회에 그치는 결정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유 이적, 부상 결장, 카드 루적 등 여러 방면의 원인으로 주력 선수들이 여럿 빠진 상황이라는 점과 원정에 유난히 약한 연변팀이라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긴 하다. 새 감독 체제로 전환한 지 3경기 밖에 안되는, 아직 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여유’를 부리기엔 팬들은 승리가 고프다. 리그 전반을 둔 현재 연변팀은 17점으로 10위에 올라있으며 11위 상해가정팀, 12위 홍콩강방성팀, 13위 불산남사팀 세 팀 모두 16점 동점으로 1점 차 간격으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그렇다고 비판론을 펼치기엔 아직 이르다. 제 15라운드 원정을 마친 연변팀은 7월 7일에 홈으로 돌아와 8월 18일까지 4연속 홈경기를 이어간다. 홈에 강한 연변팀이 ‘마귀홈장’에서 그 어떤 승부욕과 투지를 끌어올릴지... 홈에서 차곡차곡 승점 사냥에 성공할지... 연변팀의 안방 활약을 기대해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었다.

/ 김가혜기자

경기장에 나타난 ‘손오공’



6월 26일, 중국 슈퍼리그 제 16라운드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장춘 아태팀은 홈장에서 산둥대산팀과 2대 2 무승부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장춘팀의 볼보이(球童)들이 ‘손오공’으로 변신해 언론매체와 현장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고양하고 문화

자신감을 제고하며 장춘의 문화관광산업과 슈퍼리그의 융합을 추진하기 위해 장춘팀은 기베네(吉貝家) 유치원과 합작하여 장춘팀의 홈장 경기일에 손오공 복장을 볼보이들의 입장복으로 채용, ‘남령’을 ‘화과산’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장춘 축구문화 발전의 새로운 장을 펼쳤다.

/ 글 오건기자 / 사진 류향희기자

‘유로 우승팀의 저주’, 3 대회 연속 16강 탈락

유로대회에서 지난 대회 우승팀이 3개 대회 연속으로 16강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탈리아는 6월 30일 (이하 북경시각) 0시에 독일 베를린의 올림피아스타디온에서 열린 유럽축구 연맹(UEFA) 유로 2024 16강 스위스와의 경기에서 0-2로 패하며 탈락했다.

유로 2020 챔피언인 이탈리아 리그에서는 충격적인 패배다. 전반전 고작 슈팅 1개에 그칠 정도로 경기 내용에서도 완전히 패했다.

이탈리아의 탈락으로 ‘우승팀의 16강 저주’가 또 발현했다.

유로에 16강 제도가 생기면서 이전까지 본선

에는 16개 팀만 참가하다 유로 2016부터 본선 24개 팀, 16강 제도로 바뀌었다.

유로 2012 우승팀인 에스파냐는 유로 2016 16강에서 이탈리아에 0-2로 패하며 탈락했다. 그리고 유로 2016 우승팀인 포르투갈은 유로 2020에서 벨지기에 0-1로 패하며 탈락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유로 2020 우승팀이었던 이탈리아가 유로 2024 16강에서 스위스에 0-2로 지며 탈락하게 됐다.

유로에 16강 제도가 생긴 이래 ‘전년도 챔피언은 16강에서 탈락한다’는 징크스가 3번 연속 나오게 된 것이다.

/ 외신종합

길림성 제 1 회 종업원 축구경기 연변지역 경기 시작



6월 27일, 길림성 제 1 회 종업원 축구경기 연변지역 경기가 룡정시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시작되었다.

길림성총공회와 길림성체육국에서 주최하고 길림성종업원문화체육협회, 룡정시해란강축구문화타운 등에서 주관, 연변조선족자치주총공회에서 협조한 이번 경기는 ‘푸른 잔디 위에서 축구공 쫓고 종업원 한마음한뜻으로 미래 주조’를 주제로 했다. 길림성 제 1 회 종업원 축구경기 연변지역 경기는 기업소조, 기관사업단위소조, 대학교소조 등 3개 소조를 설치하고 단순한 경기 형식을 취해 각 팀의 순위를 결정한다. 최종 우승팀은 성급 경

기에 참가하게 된다.

경기에서 앞서 펼쳐진 개막식에서 활동의 배경과 의의에 대해 소개하고 경기 발의서를 낭독했으며 심판원과 선수 대표가 공평한 경기를 진행할 데 관해 선서를 했다.

이번 축구경기의 개최를 통해 종업원들의 문화, 체육 생활을 한층 더 풍부하고 종업원들에게 축구기술을 연마하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여러 민족 종업원들간의 관계와 소통을 강화함과 더불어 여러 민족 종업원들의 단결을 촉진했음은 물론 변경지역 경제사회발전을 한층 더 추동했다.

/ 길림일보

빠리올림픽 중국체육대표단 ‘챔피언 복장’ 공개!

빠리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중국체육대표단 시상복이 6월 25일 북경에서 공개되었다.

시상복은 ‘챔피언 복장장’ (冠军龙服) 설계를 이어갔고 고전 중국 스타일과 흰색을 주요 색상으로 했으며 ‘룡린’ (龙鳞), ‘룡수’ (龙须) 등 요소를 무늬로 집합, 자수 등 공예와 결합하여 중국 전통문화를 전세계에

전달하는 동시에 새시대 우리 나라 선수들의 진취적이고도 활기찬 정신 면모를 보여주었다. 중국 운동선수들은 빠리올림픽 경기장에서 메달을 딴 후 이 시상복을 입고 시상대에 올라 중국 체육健儿들의 이미지를 전시하게 된다.

료해에 따르면 빠리올림픽에서 중국체육대표단의 시상 장비는 친환경

재생섬유로 제작되었고 생산과정에서 재생나일론, 재생폴리에스터 등의 친환경 원단을 사용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유조하다. 그중 시상복은 50% 이상의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중국 최초 권위기구로부터 공인받은 탄소중립 올림픽 시상 장비이다.

/ 인민넷 - 조문판

